

조선대 '해외 취업의 메카' 뜬다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K-MOVE 스쿨' 사업 4년째 진행 해외진출 견인 학생 59명 미국 취업 성과



미국 취업을 목표로 'K-MOVE 스쿨' 4기에 참가한 조선대 학생들이 강의에 열중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조선대학교가 해외 취업 잘하는 대학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취업하면 수도권 대학을 떠올리지만 최근 지역대학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대폭 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조선대가 다채로운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K-MOVE 스쿨' 사업을 4년째 진행 중이며, 59명의 학생이 미국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더불어 조선대 대학알리센터가 운영하는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전문 인재로 양성하고 내실있게 지원하고자 국비 지원 해외취업연수과정인 'K-MOVE 스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해외 구인업체의 모집요건에 부합하는 직무교육 및 어학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후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K-MOVE 스쿨'은 해외 취업처를 사전에 확보하여 취업성공률이 비교적 높다.

조선대는 2015년부터 'K-MOVE 스쿨'에 참여하고 있다. 조선대는 미국 취업을 목적으로 현재 'K-MOVE 스쿨' 4기 운영을 2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조선대 'K-MOVE 스쿨' 4기는 경상계열, 영어과, 영문학과, 중문학과 소속 학생 중 해

외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영사무, 마케팅, 회계, 리서치, 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분야에 초점을 맞춰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는 어학과 직무 관련 교육이 진행되는 국내 7개월(총 833시간)의 연수과정을 마친 후 미국으로 출국해 1년간의 계약근무를 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참여 연수생은 연수비와 비자발급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자들은 계약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최대 6년간 미국 체류 근무가 가능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연수자들은 현지 기업에서 성장시킨 글로벌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다국적 기업 국내 지사 등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조선대는 4년간 'K-MOVE 스쿨'을 통해 현재까지 총 59명의 해외취업자를 배출했다. 특히 최근 진행하고 있는 4기 참여자 20명은 중도 탈락인원 없이 연수기간이 끝나기 전 전원 잡매칭이 완료됐다.

조선대 대학알리센터는 지역에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외에서 구직활동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알리센터가 진행하는 해외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은 ▲해외취업 cheer up! ▲일본 IT 취업연계과정 및 일본취업을 위한 Level up! ▲글로벌 취업아카데미 등이 있다.

'해외취업 cheer up!'은 글로벌 기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련 취업정보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일본 IT 취업연계과정 및 일본취업을 위한 Level up!'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는 현지 일본 기업을 타겟으로 대상자들에게 취업정보와 일본어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또 '글로벌 취업아카데미'는 영문 이력서 작성 등 해외 취업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조선대학교가 호남지역 대표 글로벌 인재 양성소로 소문이 나는 게 목표"라며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세계 어느 곳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정의과팀, 전국대학생 통일토론회 최우수상

전남대 학생들이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27일 전남대에 따르면 통일부가 주최한 '전국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포라' 학술동아리(오영열, 전봉성, 박성욱, 송진관)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 최근 김재기(광주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교수가 통일부 장관상을 전수했다.

토론회 결선에는 4개 대학이 올랐으며, 전남대 코리아스포라팀은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연해주'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블렌디드 러닝'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최고의 강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1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광주대는 학교 호심기념도서관 6층에 55.38㎡ 규모로 '知Well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이리닝 콘텐츠 제작과 플립드러닝 콘텐츠 등 다양한 강의콘텐츠 제작실로 활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수법으로 주목받는 '블렌디드 러닝'에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혼합형 학습을 의미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온라인 학습의 강점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적절히 혼합해 적용하는 교육방식을 말한다. 특히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질 높은 온라인 교육 지원부터 가상현실 콘텐츠 보급까지 가능하며,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 교육 플랫폼 개발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겨울방학 캐나다·말레이서 해외어학연수

동신대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캐나다·말레이시아·베트남 등에서 봉사활동이나 어학연수를 하며 국제 감각을 키우고 있다.

동신대학교(총장 최일) 국제교육원은 재학생 10명을 선발, 오는 2월9일까지 4주간 '캐나다 해외어학연수'를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4주 동안 주 5회, 매일 4시간씩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어학 교육을 받는다. 캐나다 현지 주민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거나 어학기관 기숙사에 머물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기른다.

캐나다 어학연수는 영어 실력 증진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개설됐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까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15명의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어학연수를 마쳤다. 말레이시아 어학연수는 초급자를 위한 단기 집중과정으로, 전문 학습관리자의 지도 아래 정규 어학 수업 시간 외에도 보충학습을 진행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BI센터 입주·졸업기업 경영혁신 워크숍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창업보육기업의 우수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성공의 길잡이가 됐다.

동강대 창업지원단은 최근 교수연구동 1층 메이커스페이스실에서 '2019년 하반기 창업보육(BI)센터 입주기업 경영혁신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동강대 BI센터 입주 및 졸업기업 대표와 창업맞춤형사업 선정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 선정기업, 청년창조기업 선정기업 대표 및 팀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한 창업보육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및 경영교육 노하우 전수 시간을 가졌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평생교육 등 강사 모집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2020년도 평생교육 및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념회관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도서관 가자(12명) ▲꿈꾸는 방과후 교실(2명) ▲청소년강좌(1명) ▲문화강좌(14명) 등 5개 과정 총 32명의 강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나를 찾아서(8명) ▲찾아가는 꿈키움(3명) 등 2개 과정에서는 11명의 강사를 모집한다.

지원희망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및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31일까지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목포대, '문제 발견·해결하기' 학습법 워크숍

국립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은 최근 디자인씽킹을 통한 '진짜 문제 발견하고 해결하기'를 주제로 학습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디자인씽킹'이란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감을 통해 숨은 욕구와 보이지 않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빠르고 저렴한 프로토타입을 반복해 만들어 보면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와우디언연구소 김윤희 수석퍼실리테이터가 함께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총 20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디자인씽킹 공감하기-문제 정의하기-아이디어 내기-프로토타입 만들기-테스트 등 총 5단계의 디자인 씽킹 과정을 10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참여 학생들은 3팀으로 나뉘어 1단계 '공감하기'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정보 통합 앱 개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대학 만들기 ▲타 학과 간 교류소 소통단절 해결이라는 3가지 주제를 해결 문제로 정의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